

최근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와 영화 '싱글즈' 때문인지 동거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거란 "결혼식 유무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혼을 의미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거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에 매우 개방된 의식과 일에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부모의 가치관과 상충되기 때문에 독신을 빙자한 동거생활을 하지만, 동거에 대한 개인의 갈등은 과거보다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 사랑, 생활비 절감 등 다양한 이유로 동거

그러나 이들의 동거생활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데이트 동거형"은 서로가 좋아서, 함께 있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동거하는 유형으로 두 사람의 애정이 식지 않는 한 동거관계는 계속된다. 겉으로는 싱글이지만 사실 동거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또는 두 사람 중 한쪽 혹은 양쪽이 부모의 영향력으

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거를 선택하는 "해방형"이 있는가 하면, 산업화 시기에는 공단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 또는 안정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의형" 동거도 있다.

실험결혼적 성격을 띠는 "실험형"은 동거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에는 결혼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결혼에 대한 일시적 대안형"은 결혼을 원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적절한 시기(예를 들면, 졸업, 취업 후, 직장만 이후, 부모의 결혼 승낙 이후 등)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거하며 결혼을 연기하는 유형이다. 현재 유럽에서 보편적인 동거형태는 "결혼에 대한 영구적 대안형"으로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갖고 있지만, 법적 혹은 사회적 결혼은 거부하는 유형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편의형"이나 "결혼에 대한 일시적 대안형"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데이트동거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동거와 결혼을 비교해 보면, 동거는 결혼보다 훨씬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동거하는 커플들의 대다수가 2년 이내에 헤어지

## 낭만적 동거에 대한 신화

최근 매스컴에서는 자유롭고 담당한 동거가 자주 눈에 띈다. 동거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낭만적인 걸모습만 다루어 동거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는 건 아닐까? 왜 갑자기 매스컴에서는 동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정천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거나 합법적인 결혼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동거를 끝내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대개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화하거나 자녀를 갖기 위해, 혹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다.

동거와 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동거관계들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몰입인 반면, 결혼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몰입과 함께 책임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거하는 커플이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위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압력은 결혼한 부부들만큼 강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거관계는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결혼관계는 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

### 수면 아래의 동거가 부상했을 뿐

물론 동거의 이점도 분명히 있다. 동거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혼에 대한 기대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상의 기술,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경제활동 및 가사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동거관계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모호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거라는 생활양식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결혼에 대한 기대나 가사분담과 관련하여 파트너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날 경우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거의 동기와 동거에서의 파트너와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동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방 관계에 대한 기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거는 이미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현상은 아니다. 최근의 동거에 대한 열기는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서서히 불위로 올라왔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스컴의 영향으로 동거가 일과 사랑, 자유 등의 단어로 매우 낭만적으로 미화되어 왔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지만, 그런 점들은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미션 주키비블 감당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동거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남녀관계에서의 가부장적 사고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어 동거관계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불안하다. 그래서 유럽과 같이 "결혼에 대한 영구적 대안형"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동거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결혼 혹은 동거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거가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혈연중심의 가족법과 가족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개방적인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